2024년 거시경제 전망

요 약

2024년 국내경제는 IT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에 힘입어 수출과 설비투자가 증가세로 돌아서나, 고물가·고금리의 영향으로 소비 성장세가 둔화되고 건설투자가 위축되면서 전년 대비 2.0% 수준의 완만한 성장이 예상된다. 대외적 불확실성 요인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진정 여부와 주요국들의 고금리 지속에 따른 금융 부문의 불안정성, 전쟁 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확실성, 반도체 경기의 회복 속도 등이며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문제의 현실화가 주요 불확실성 요인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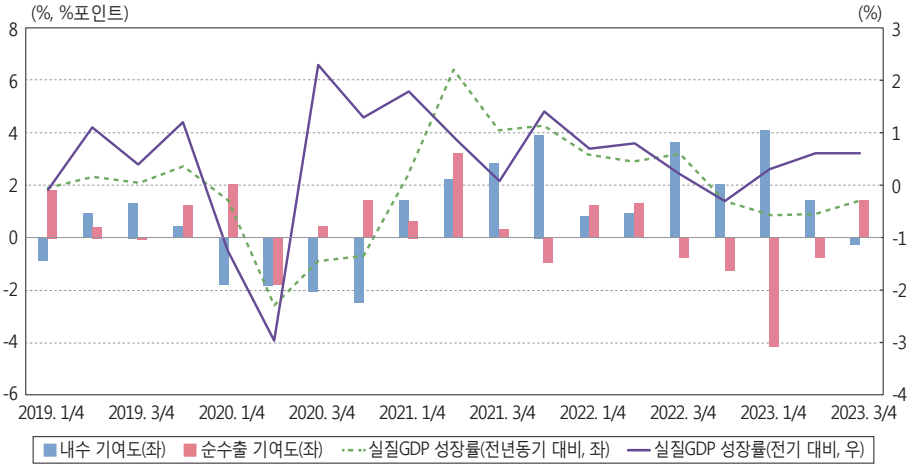
2024년 세계경제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탈세계화 등에 따른 인플레의 압력으로 주요국들의 고금리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제한적인 성장세가 예상된다. 유가는 원유 생산국의 공급 증가 가능성이 가격 상승을 제한하고, 하반기에는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급 우려가 완화되면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원/달러 환율은 연준의 긴축 종료 가능성, 수출 및 반도체 경기회복 등이 하락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완만한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간소비는 고금리와 높은 가계부채로 이자 부담이 확대되고, 자산가치의 하락, 높은 물가 수준 등 다수의 제약요인의 영향으로 구매력이 약화되어 성장을 제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설비투자는 반도체의 업황 개선에 따른 제조업 경기의 반등에 힘입어 상승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은 반도체의 업황 개선, 기저효과와 세계 무역의 완만한 회복으로 전년 대비 상당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1. 국내 경기 상황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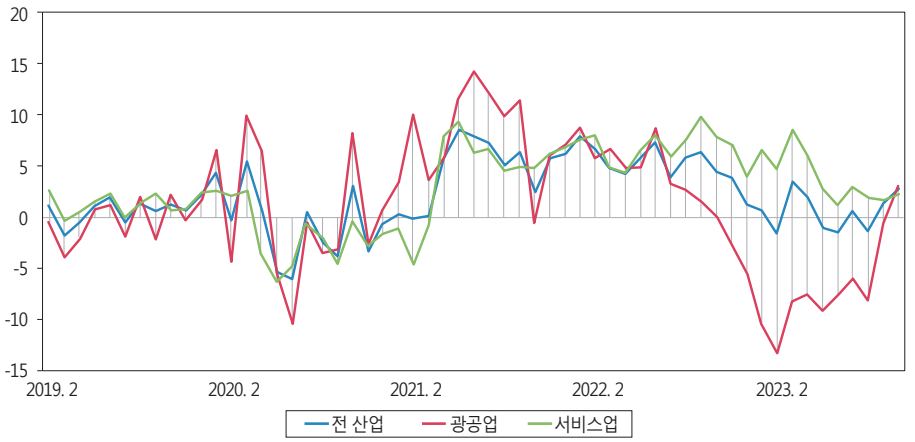
2023년 국내 실물경기는 수출 경기가 완만한 회복을 보이면서 실물경기의 둔화세가 완화되고 있지만, 고금리의 지속과 전쟁 리스크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확대되었다. 소비는 서비스 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고물가와 고금리의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전체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설비투자는 높은 금리 수준이 신규 투자를 제약하고, 반도체 부진, 제조업 경기 회복 지연, 대외 여건의 불

〈그림 1〉 실질GDP 성장률과 부문별 성장기여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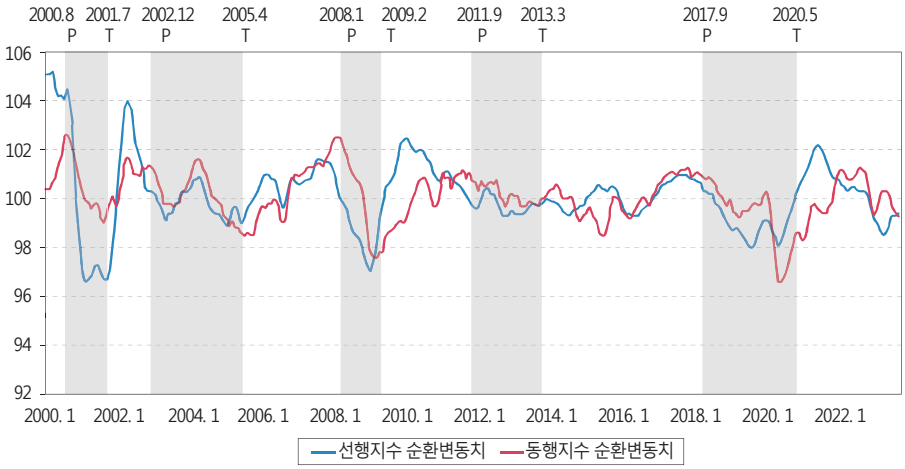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주: 내수는 민간소비와 총고정자본형성의 합.

〈그림 2〉 산업생산지수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3〉 경기종합지수 추이



자료: 통계청.

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하반기 들어 수출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감소세가 반도체 경기 회복으로 완화되고, 수입 역시 큰 감소 폭을 보이며 무역수지는 흑자로 전환되었다.

산업생산은 서비스업 생산의 증가세가 축소된 반면, 광공업 생산은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전반적으로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 순환변동치가 100 이하를 기록 중인 가운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최근 4개월 연속 하락했지만,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5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여 현재는 경기가 부진하지만 향후 개선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2. 대외 여건 전망

(1) 세계경제

세계 실물경기를 살펴보면 선진권 중 미국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인 반면, 일본과 유로존은 미약한 성장세를 보이고, 신흥권은 미약한 반등세가 나타나는 등 국가 간 불균등한 모습이다. 선진권은 미국이 고용시장의 호조와 소비 증가세 등에 힘입어 연간 2%대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해 왔지만, 일본과 유로존은 내수가 약세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미약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신흥권은 중국이 코로나 봉쇄 조치 완화

이후 내수 반등에 힘입어 연간 5%대 성장률을 회복하고, 브라질(2023년 상반기 연 3%대 성장률)과 인도(6%대 성장률) 등지에서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다.

2024년 국가별 전망을 살펴보면, 미국경제는 더딘 인플레 둔화로 연준(Fed)의 고금리 기조가 상당 기간 이어지고, 이로 인한 수요 억제가 본격화되면서 성장률 하락이 예상된다. 일본 경제는 내수가 약화되는 가운데, 일본은행(BOJ)의 통화정책 전환과 기시다 정부의 감세 정책 등에 의해 성장 둔화 정도가 좌우될 것으로 보이며, 유로존은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고물가 및 고금리 기조가 내수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역내 성장의 둔화세가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중국 경제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른 내수 부진과 서방 국가들의 수출 제한 조치에 따른 외수 약세로 인해 대내외 성장 여건이 약화되어 있는데다, 인구 감소 등에 따른 잠재성장 여력의 하락세 등으로 성장률의 하락이 예상된다.

종합적으로 2024년 세계경제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가운데 탈세계화 등에 따른 인플레 압력으로 주요국들의 고금리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제한적인 성장세가 예상된다. 한편, 세계교역은 2023년 침체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일정 부문의 반등이 기대된다. 세계경기 향방의 주요 변수로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가장 주목되는 가운데 주요국들의 인플레 안정화 여부와 고금리 기조에 따른 수요 억제 정도, 주요국들의 정치 이벤트

〈표 1〉 세계 권역별 및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추이와 전망

단위: %, 전년동기비(전기비 연율)

	2022			2023			IMF		OECD	
	상반기	하반기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2023	2024	2023	2024
전 세계			3.5				3.0	2.9	3.0	2.7
선진권	3.5	1.7	2.6	1.5	1.5	-	1.5	1.4	-	-
미국	2.7	1.2	1.9	1.7 (2.2)	2.4 (2.1)	2.9 (4.9)	2.1	1.5	2.2	1.3
유로존	4.8	2.1	3.4	1.2	0.5	0.1	0.7	1.2	0.6	1.1
일본	1.0	0.9	0.9	2.0	1.7	1.2	2.0	1.0	1.8	1.0
신흥권	3.9	3.3	3.6	3.4	4.9	-	4.0	4.0	-	-
중국	2.6	3.4	3.0	4.5	6.3	4.9	5.0	4.2	5.1	4.6
세계 교역			3.4				-0.3	3.2	-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2023.10월);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2023.9월); World Bank GEM Database.

주: 1) 전 세계는 시장환율 적용 기준.

2) 선진권과 신흥권의 반기별 및 분기별 수치는 세계은행 추산 기준.

(미국 대선 등) 결과 및 국가 간 대립 완화 여부 등을 들 수 있다.

(2) 유가 및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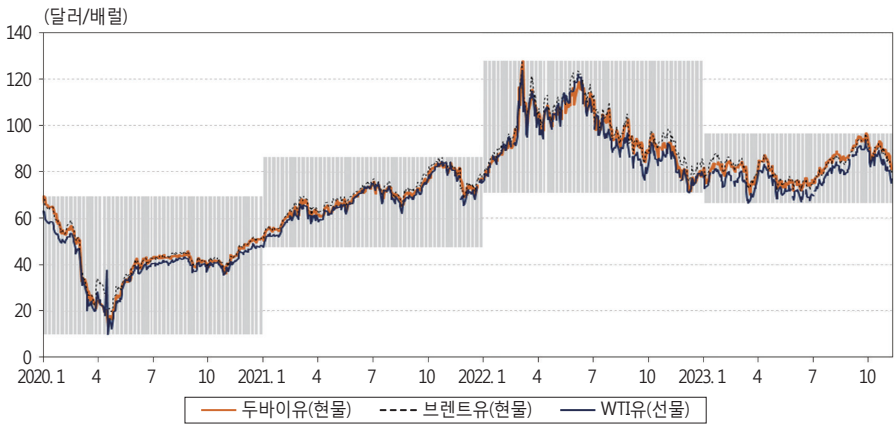
2023년 하반기 국제유가는 공급 감소 전망, 미국통화정책 기대감, 지정학적 불안정성 확대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지만, 달러화 강세, 러시아 수출 금지 완화, 원유 공급 증가가 상승세를 제한하면서 최근 하락세를 보였다.

2024년 국제유가는 원유 생산국의 공급 증가 가능성이 가격 상승을 제한하고,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급 우려가 완화되면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두바이유 기준으로 2024년 유가는 상반기 평균 84.8달러(전년동기비 +7.3%), 하반기 81.2달러(-7.4%)로 예상되고, 연평균으로는 83.0달러로 2023년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쟁의 확산 등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가 상반기 유가 변동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하반기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통화정책 불확실성 완화, 무역흑자 전환 등으로 하락하다 중국 성장의 부진,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 중동의 정세 불안 등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잠시 상승 전환한 이후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급락하였다.

2024년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과 반도체 경기 개선에 따른 국내 수출 회복 등에 힘입어 완만한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반기

〈그림 4〉 국제유가 추이



자료: 한국석유공사.

주: 1) 음영 부분은 연간 변동 범위(최솟값~최댓값)임.
2) 2020년 4월 20일 WTI유 가격은 배럴당 -37.6 달러를 기록.

〈그림 5〉 원/달러, 달러 인덱스 추이

자료: ICE Data Services, 한국은행, Data Stream.

평균 1,301.7원(전년동기비 +0.5%), 하반기 1,275.0원(전년동기비 -3.7%), 연평균 1,288.3원(전년 대비 -1.6%) 내외로 전망된다. 한편 불확실성 요인인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확산 우려는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달러 강세 요인으로, 유가 급등 동반 시 인플레 지속이 미국 고금리 기조를 유지시키면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3. 2024년 국내경제 전망

(1) 경제성장

2024년 국내경제는 IT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에 힘입어 수출과 설비투자가 증가세로 돌아서나, 소비가 고물가·고금리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건설투자가 위축되면서 전년 대비 2.0% 수준의 완만한 성장이 예상된다.

대외적 불확실성 요인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진정 여부와 주요국들의 고금리 지속에 따른 금융 부문의 불안정성, 전쟁 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확실성, 반도체 경기의 회복 속도 등이며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문제의 현실화가 주요 불확실성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내수는 고물가와 고금리의 영향으로 민간소비와 건설투자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설비투자는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소폭 회복될 전망이다. 민간소비는 고금리와 높은 가계부채로 인한 이자 부담 확대, 금융 부문과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로 인

〈표 2〉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억 달러

	2022	2023			2024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실질GDP	2.6	0.9	1.6	1.3	2.2	1.9	2.0
민간소비	4.1	3.1	0.9	2.0	1.6	2.2	1.9
설비투자	-0.9	5.3	-6.0	-0.6	-1.5	5.9	2.1
건설투자	-2.8	1.8	2.5	2.2	1.2	-1.4	-0.2
통관 수출	6,836	3,071	3,247	6,318	3,248	3,423	6,671
	(6.1)	(-12.4)	(-2.5)	(-7.6)	(5.8)	(5.4)	(5.6)
통관 수입	7,314	3,333	3,120	6,454	3,162	3,244	6,406
	(18.9)	(-7.8)	(-15.7)	(-11.8)	(-5.1)	(4.0)	(-0.7)
무역수지	-478	-262	126	-136	86	179	265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구원.
주: 2023년 하반기부터는 산업연구원 전망치.

한 자산가치의 하락, 높은 물가 수준 등 다수의 제약 요인들이 구매력을 약화시키면서 성장을 제약할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자동차가 친환경 차량의 견조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반도체 업황의 완만한 회복과 관련 주요 기업들의 계획된 투자 집행, 기저효과 등에 힘입어 소폭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건설투자는 정부의 SOC 예산 증가, 토목건설 수주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증가하고, 신규 인허가 및 착공, 건설수주액 등의 선행지표들이 부진함에 따라 올해에 비해 감소가 예상된다. 한편, 수출은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는 가운데 자동차의 견조한 수출 규모 유지, 전년도의 기저효과와 세계 무역의 완만한 회복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가 예상된다.

(2) 부문별 전망

1) 민간소비

2023년 민간소비는 수입물가의 하락과 소득 여건의 개선에도 전년보다 낮은 증가를 보였다. 민간소비는 2023년 상반기 전년동기비 3.1%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3분기에 전년동기비 0.3% 증가하면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실질총소득(GNI)은 수입물가의 하락과 교역 조건의 개선 등으로 2분기에 전년동기비 0.8%로

소폭 증가하였다. 소매 판매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와 의복 등 준내구재가 감소하고, 내구재 판매 또한 고금리, 기저효과 등으로 자동차, 가전제품, 통신기기 등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확대되며 3분기에는 감소 폭이 확대되었다.

취업자 수는 기저효과로 증가세가 작년에 비해 둔화한 모습을 보이지만 7월 이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며 고용률 또한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 8월 이후 하락하면서 10월에는 100을 하회하는 98.1을 기록하고, 2023년 3분기 가계대출금리는 4.8%로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2024년 민간소비는 고금리와 높은 가계부채로 인한 이자 부담의 확대,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자산가치의 하락, 높은 물가 수준 등 다수의 제약요인의 영향으로 구매력이 약화되어 연간 1.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하반기에는 기저효과, 물가 하락, 금리 하락 등이 예상되어 소비 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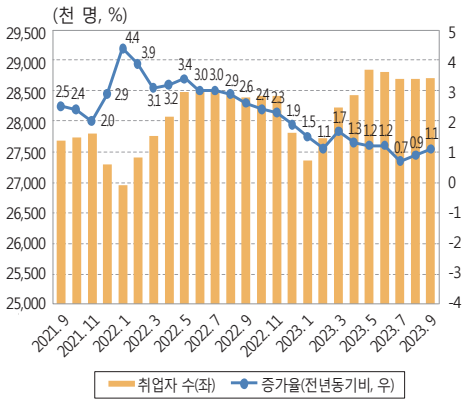
〈표 3〉 민간소비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민간소비	3.6	4.0 (-0.6)	4.1 (2.9)	5.2 (1.6)	3.3 (-0.5)	4.1	4.6 (0.6)	1.6 (-0.1)	0.3 (0.3)
소매판매액지수	5.8	2.6 (-1.2)	-0.2 (-0.4)	-0.9 (0.6)	-2.3 (-1.4)	-0.3	-0.4 (1.1)	-0.2 (-0.3)	-2.7 (-2.5)
실질 GNI	3.5	0.0 (0.4)	-1.4 (-0.9)	-0.6 (-0.4)	-0.8 (0.0)	-0.7	0.6 (1.9)	0.8 (-0.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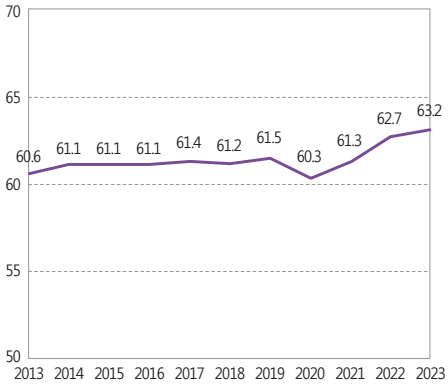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주: ( ) 안은 계절조정 자료의 전기비.

〈그림 6〉 취업자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그림 7〉 소비자 심리지수



자료: 통계청 소비자동향조사.

2) 설비투자

최근 설비투자는 고금리, 반도체의 불황 지속, 제조업 경기의 회복 지연,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2023년 상반기 설비투자의 전년동기비 증가세는 전년도 기저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전분기 대비로 살펴보면 1분기에 감소세로 전환하였고 3분기에는 2.7% 감소하는 등 2022년 2분기(1.6%)에 시작된 회복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2024년 설비투자는 자동차가 친환경 차량에 대한 견조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반도체 업황의 완만한 개선과 주요 기업들의 계획된 투자 집행, 그리고 기저효과에 힘입어 소폭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이에 설비투자는 상반기에 전년동기비 1.5% 감소, 하반기에 5.9% 증가가 예상되면서 연간 전체로는 2.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4〉 설비투자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2022					2023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설비투자	-0.9	-7.3 (-4.2)	-6.7 (1.6)	4.4 (7.0)	6.5 (2.4)	5.9 (-5.0)	4.7 (0.5)	-4.7 (-2.7)
기계류	1.7	-4.7 (-3.1)	-4.2 (1.5)	4.6 (7.6)	11.7 (5.2)	7.5 (-6.3)	7.1 (1.0)	-
운송장비	-9.4	-16.3 (-8.0)	-14.1 (1.9)	3.8 (4.9)	-8.6 (-7.3)	-0.5 (0.4)	-3.2 (-1.0)	

자료: 한국은행.
주: 1) 2023년 3분기는 잠정치.
2) ( ) 안은 계정조정계열의 전기비 증감률.

3) 건설투자

2023년 건설투자는 건설자재의 수급이 개선되고 가격 상승세도 완화되면서 건물건설 투자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토목건설이 전년의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건물건설이 올해 들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증가세를 보였다.

2024년 건설투자는 정부의 SOC 예산 증가, 토목건설 수주의 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증가하고, 신규 인허가 및 착공, 건설수주액 등의 선행지표들이 부진을 보임에 따라 올해에 비해 0.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5〉 건설투자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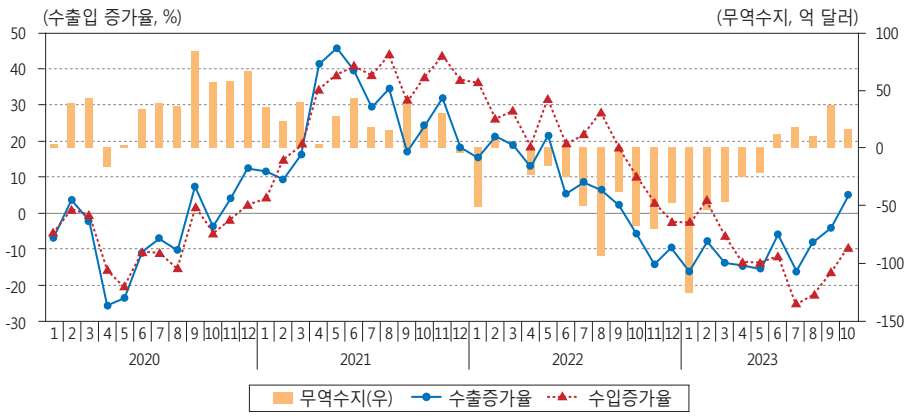
		2022					2023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건설투자		-2.8	-3.8 (-2.5)	-3.7 (-0.6)	-2.0 (-0.1)	-1.8 (1.3)	1.9 (1.3)	1.7 (-0.8)	4.0 (2.2)
형태별	건물건설	-1.0	-1.9 (-2.9)	-0.6 (1.0)	-0.5 (0.1)	-1.2 (0.6)	4.2 (2.6)	4.8 (1.4)	
	주거용 건물	-3.0	-5.0 (-8.0)	1.2 (5.7)	-2.0 (-2.0)	-6.2 (-1.6)	5.7 (4.0)	5.2 (4.7)	
	비주거용 건물	0.9	1.3 (2.2)	-2.2 (-3.3)	0.9 (2.1)	3.8 (2.6)	2.7 (1.2)	4.5 (-1.7)	-
	토목건설	-7.4	-8.8 (-1.3)	-10.9 (-4.8)	-6.6 (-0.4)	-3.1 (3.3)	-4.3 (-2.1)	-6.0 (-7.1)	
주체별	민간	-2.0	-3.1 (-2.6)	-1.0 (2.8)	-1.6 (-1.5)	-2.6 (-1.1)	2.1 (2.0)	2.0 (2.6)	
	정부	-5.6	-6.8 (-2.0)	-11.6 (-13.5)	-4.5 (6.4)	1.1 (11.1)	1.3 (-1.2)	0.8 (-13.4)	

자료: 한국은행.
주: 1) 2023년 3분기는 잠정치.
2) ( ) 안은 계정조정계열의 전기비 증감률.

4) 수출입

2023년 수출은 전년부터 이어진 감소세가 하반기 들어 완화되고, 수입이 큰 감소폭을 보이면서 하반기 들어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 및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발발, 세계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들어 유가의 안정과 에너지 및 원자재의 물량 조정 등으로 수입이 감소하여 무역수지는

〈그림 8〉 수출입 증가율과 무역수지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표 6〉 산업별 수출 증가율

단위: 전년동기비, %

	2022	2023							
	연간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10월
자동차	16.4	43.9	48.9	17.2	58.3	15.0	28.8	9.5	19.8
자동차 부품	2.4	-3.6	1.0	0.4	5.5	-0.5	5.9	-3.5	-3.7
선박류	-20.9	2.0	21.3	-3.7	98.9	-30.9	35.1	15.4	101.4
일반기계	-3.7	-2.0	5.6	6.6	7.9	2.8	7.6	9.8	10.4
철강	5.7	-15.8	-5.7	-5.7	3.1	-10.4	-11.4	6.9	-0.7
석유화학	-1.4	-22.3	-24.2	-14.2	-22.2	-23.8	-11.7	-6.1	-3.2
석유제품	64.9	-0.5	-34.8	-27.7	-40.0	-39.3	-33.0	-6.9	18.0
섬유	-3.9	-15.2	-11.2	-11.7	-2.8	-15.4	-10.9	-8.5	-9.0
가전	-7.4	-8.5	-7.5	7.5	3.3	2.4	12.2	8.5	5.8
무선통신기기	6.4	-13.4	-20.8	-8.2	-12.3	-15.4	-8.6	-3.1	-4.5
컴퓨터	-5.1	-61.9	-61.6	-48.1	-53.5	-33.4	-54.6	-53.9	-30.4
반도체	1.0	-40.0	-34.8	-22.6	-28.0	-33.6	-20.6	-13.6	-3.1
디스플레이	-1.1	-39.5	-16.5	1.2	-11.1	-4.6	4.1	4.2	15.5

자료: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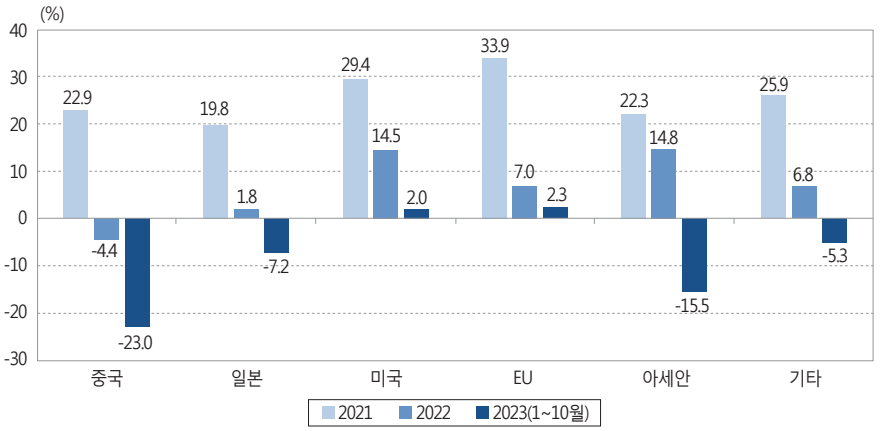
6월부터 흑자로 전환되었고, 수출은 10월 들어 상승 전환되었다.

산업별로는 자동차의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반도체는 2023년 하반기부터 감소세가 완화되면서 전반적인 수출 부진도 완화되었다. 자동차 수출은 2022년 전년 대비 16.4% 증가에 이어 2023년에도 수출 확대 추세가 지속되었고, 반도체는 2023년 1분기 전년동기비 기준 40% 감소한 이후 감소 폭은 점차 축소되어 10월에는 전년동월 대비 기준 한 자릿수 감소율(-3.1%)을 기록하였다. 일반기계, 철강, 섬유, 가전,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등은 2023년 수출 실적이 개선되거나 둔화 폭이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한편, 석유화학은 여전히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국과 EU 등 선진국으로는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중국, 아세안(ASEAN) 등으로의 수출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대(對)중국 수출은 2022년에 이어 2023년 들어서도 10월까지 전년동기비 23.0% 감소하였고, 대(對)아세안 수출 역시 15.5% 감소하였다. 중국 및 아세안에 대한 수출 감소는 반도체의 업황 부진이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미국과 EU는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부문이 수출을 주도하였다.

2024년 수출은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는 가운데 자동차의 견조한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고, 전년도의 기저효과와 세계 무역의 완만한 회복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반도체는 업황 개선, 주요 기업들의 감산 정책의 영향에 따른 수출 단가 회복, 전년도의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9〉 지역별 수출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입은 수출의 업황 개선에 따른 중간재 수입의 증가와 국제유가 안정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0.7% 감소가 예상된다. 수출 업황 개선으로 중간재 수입이 증가하면서 수입액의 증가가 예상되며, 수출 개선 흐름에 따라 상반기 대비 하반기 규모가 더 클 전망이다. 따라서 2024년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수출 규모가 확대되고, 수입은 감소하면서 연간 265억 달러 수준의 흑자가 예상된다.

박성근
동향·통계분석본부 동향분석실 연구위원
sungpark@kiet.re.kr / 044-287-3172
「한국경제의 장기 성장 둔화와 그 원인」(공저, 2021)
「산업경기 모니터링 분석방안 연구: 제조업을 중심으로」(공저, 2020)

한정민
동향·통계분석본부 동향분석실 연구원
jmhan@kiet.re.kr / 044-287-3291
「위드 코로나 시대의 수출 유망 품목과 수출 확대 방안 연구」(공저, 2022)
「최근 우리나라 수출 호조의 배경과 시사점」(공저, 2021)